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2회 횡성군 한마음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1
	온라인	작년 강원 산악 사고 1,287건..증가세	2
江原日報	04면	“설악권 산악사고 전체의 40% 차지 안전 대책 필요”	3
위클리오늘	온라인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4
江原日報	19면	고성군 노인대학 개강식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향군여성회 가치 높이는 봉사활동 적극 추진"	6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윤길로(영월) 도의원	7
江原日報	01면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 10~11월 중 춘천서 열린다	8
강원도민일보	06면	코스닥 상장사 41.7% 적자...강원 바이오 약진	9
강원도민일보	17면	"정시 퇴근하세요" 양구군 퇴근송 호응	9
江原日報	20면	수소 전문기업 육성 팔걸은 동해시	10
江原日報	16면	"지방시대 엑스포 370억 경제 효과"	10
강원도민일보	08면	대통령실 "의사 증원 비롯 의료개혁 전공의 입장 존중"	11
강원도민일보	10면	수도권 접근성 강점 '춘천 잠재력' 알린다	11
江原日報	07면	강원 건설업계 위기설 현실화	12
강원도민일보	15면	인제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잇따라	13
강원도민일보	04면	제2 오색케이블카 건설 본격화 전수조사 나선다	13
江原日報	05면	황사 늘고 많은 비 내려 맑은 하늘 보기 힘든 '봄'	14
江原日報	22면	소이산 모노레일 이용객 20만명 눈앞	15
江原日報	18면	주말 강릉 곳곳 '벚꽃축제' 활짝	15
강원도민일보	07면	밀었던 구내식당마저...천정부지 물가에 '사먹기 겁난다'	16
江原日報	19면	“산림1번지 인제 만들기 밀거름되길”	17
강원도민일보	04면	사전투표 하고 벚꽃 나들이 떠나요	18
강원도민일보	21면	강원FC 첫 승 신바람... 7일 전북 원정 2연승 잇는다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사과' 브랜드화 과제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신종 사기 ‘리딩방’ 피해 급증, 대책 마련 시급하다	20

江原日報

2024 04 04 ( )

## [포토뉴스] 제2회 횡성군 한마음 그라운드골프 대회 개최



횡성군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최경근)는 4일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제2회 횡성군 한마음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박명서 횡성군체육회장,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 양재관 횡성군산림조합장, 마기성 횡성농협조합장, 정종자 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춘천MBC

2024 04 04 ( )

## 작년 강원 산악 사고 1,287건..증가세

최근 4년 간 강원도 내 산악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은

2020년 931건이었던 도내 산악사고가

2021년 1천 256건으로 1천 건을 넘었고

작년에는 1천 287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악산 권역 산악 사고가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봄철과 가을철 사고가 집중된다며,

행락철을 맞아 강원도와 각 시군에

철저한 예방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江原日報

2024 04 05 ( )

04

## “설악권 산악사고 전체의 40% 차지 안전 대책 필요”

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국민의 힘·춘천·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대한 대

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이 4일 도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931건, 2021년 1,256건, 2022년 1,262건, 2023년 1,28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등산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속초·인제·양양 등 설악권 산악사고 발생이 전체의 약 40.9%를 차지했다.

박 위원장은 “산악사고는 특히 4, 5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된다”며 “산악지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과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과 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며 “실족이나 고립 등 사고에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온 장비를 갖추고 등산로의 산악위치 표지판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 04 04 ( )

## [위클리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박종국 기자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

[강원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4월 4일 “최근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산을 찾는 등산객의 발길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산악지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과 봄철 행락객 증가로 인한 봄철 산악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4년간 도내 산악사고는 20년 931건, 21년 1,256건, 22년 1,262건, 23년 1287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강조하고 “특히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4·5월부터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최근 3년간 산악사고 신고건수, 출동건수, 구조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1년 2,086건 22년 1,939건 23년 2,095건 출동건수는 21년 1,256건 22년 1,262건 23년 1,287건 구조인원은 21년 1,078건 22년 1,131건 23년 1,2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등산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설악산 권역(속초?인제?양양)의 산악사고 발생이 전체의 약 40.9%를 차지(총 출동건수 3,805건 중 1,557건)하고 있고, 시군별 출동은 인제지역 출동이 가장 많고, 양구지역 출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라든지 사전에 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야하며, 실족이나 고립 등 사고에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온 장비를 갖추고 등산로의 산악위치 표지판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등산로 안전시설점검과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명구조훈련을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등산객이 몰리는 설악산 주변에는 16명의 전문구조팀을 구성해 전진 운영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박종국 기자 wknews005@kakao.com

## 江原日報

2024 04 05 ( )

19



**고성군 노인대학 개강식** 2024년도 대한노인회 강원 고성군지회 노인대학 개강식이 지난 3일 노인회 회의실에서 남기윤 지회장, 함명준 군수, 이지영 도의원, 윤근호 노인대학장 및 수강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4 04 ( )

## 강원도민일보

## "향군여성회 가치 높이는 봉사활동 적극 추진"

강원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제26차 정기총회



▲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여성회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가 4일 오전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여성회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가 4일 오전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부인 원현순씨, 신경호 교육감과 부인 한미숙씨, 이서인 중앙여성회장, 지연배 중앙여성회 이사, 권동용 도재향군인회장,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 최계숙 철원여성단체협의회장, 양숙희 도의원을 비롯해 18개 시·군 대의원 등 110여명 등이 참석했다.

마정희 흥천군 향군여성회 회장에 본회장 표창장이, 김복순 춘천시향군여성회 회장 등 도내 4개 시·군 회원에게 중앙 여성회장 표창장이 각각 전달됐다. 주재순 도향군여성회 부회장, 이은순 춘천시향군여성회 사무국장, 김종순 원주시향군여성회 회장은 도의장 표창장을 받았다. 앞서 열린 의안심의에선 지난해 회계년도 예산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등 4건의 의결사항을 처리했다.

이순옥 도향군여성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한 해 우리 여성회는 각 시·군 여성회장을 중심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들을 보살핌과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에서 모범되고 존경받는 단체로 자리매김 했다"며 "향군여성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향군의 정체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18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5일 오후 2시 속초시역

스포 상징탑에서 열리는 식목일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16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5일 오후 8시 30분 영월

군동강둔치에서 열리는 식목일 나무나눠주기 행사에 참석한다.

2024 04 05 ( )

江原日報

01

#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 10~11월 중 춘천시 열린다

##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확정

7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 주최  
300억대 생산 유발 효과 기대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춘천에서 개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2024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역을 춘천시로 결정했다. 올해 엑스포는 10~11월 중 3일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구장을 비롯한 인근에서 열린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다.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다. 엑스포 기간 중앙 부처와 각 시·도별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는 70여개의 전시관이 마련되고 관련 콘퍼런스, 국민 참여 행사 등이 열린다. ▶관련기사 16면

춘천시는 지방시대 엑스포 방문객

5만명을 전망하며 5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 3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올 1월 엑스포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유치 당위성 개발, 행사시설 확보,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연계 행사 기획 등을 준비해 왔다. 특히 군사·환경 규제를 받아온 강원권의 균형 발전 필요성, 지방시대 정책 실현 노력도, 대도시 위주 개최를 탈피한 중소 규모 도시 개최 당위성 등을 피력하며 유치에 힘을 기울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춘천의 교육, 관광, 산업 등의 잠재적 가치를 안팎으로 알리고 도시 브랜드를 높일 기회”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시정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성공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06

## 코스닥 상장사 41.7% 적자...강원 바이오 약진

작년 영업이익 35.41% 감소  
도내 상장기업 12곳 실적 부진  
일부 바이오기업 성장세 눈길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강원지역 상장사들도 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연결기준(1146사) 순이익은 전년 대비 54.60% 감소한 3조5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5.41% 줄어든 9조 4077억 원을 기록했다. 또 코스닥 연결법인 1146사 중 668사(58.29%)가 순이익 흑자를 실현했지만 478사(41.71%)는 순이익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순이익·영업이익 감소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강원지역 상장사들 역시 국내외 경기 불황 타격을 피해가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 2023사업연도 실적현황(연결) 기준 강원지역 코스닥 상장사 12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지속·적자전환을 보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화제약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약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4% 감소, 국순당은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2%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불황 속에서도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도내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성장세를 보였다. 휴젤, 파마리서치, 바디텍메드 등 도내 5개 상장사는 영업이익 하락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2023년 휴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319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각각 1178억 원, 977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바디텍메드는 영업이익이 약 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한편 코스닥과 더불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4%,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10조 원에 못미친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15사(금융업 등 제외)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25조 16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8% 줄어 들었다. 황선우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17

## “정시 퇴근하세요” 양구군 퇴근송 호응

군수 격려 멘트·음원 송출  
효율·생산적 업무환경 목적  
군 “조직문화 혁신 적극 지원”

양구군이 정시 퇴근문화 확산과 즐겁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일 오후 6시에 퇴근송(Song)을 방송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퇴근송은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입됐다. 서흥원 군수의 직원 격려 멘트와 함께 직원들이 사전에 추천한 음원이 송출돼 신나는 퇴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으로 지친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구군의 퇴근송은 ‘일하기 좋고,

일 잘하는 양구군’을 만들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도 도입됐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군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과 사회 경험이 많은 상급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호프를 나누는 호프데이(Hopeday)’, 사무실 리모델링, 업무추진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서흥원 군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명

2024 04 05 ( )

# 江原日報

20

## 수소 전문기업 육성 팔전은 동해시

市 사업비 1억5천만원 투입  
북평산단 희망기업 19곳에  
R&D 컨설팅·홍보 등 지원

【동해】수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동해시가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업종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비 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북평산업단지 내 수소 업종 전환 희망기업 19곳을 대상으로 수소기업으로 업종 전환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강원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위탁사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아이템 발굴을 위한 R&D 컨설팅, 수소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재료, 설계 등 직접성 경비를 비롯한 기술 도입 이전비·중개비, 특히 관련 라이선스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 지원사업을 통해 고체수소저장체 기반 수소 저장 및 공급 모듈을 제작하는 성과를 올렸고 지난해 지원사

업으로 무수 암모니아 저장탱크를 제작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3,000억원 규모의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가 통과되며 이를 발판으로 환동해 에너지 및 물류거점도시로의 성장과 첨단 유망산업 특화산업단지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인섭 시 산업정책과장은 “동해시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소 업종 전환 희망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명특기자 amethy@**

2024 04 05 ( )

# 江原日報

16

## “지방시대 엑스포 370억 경제 효과”

### 춘천시 유치 확정

【춘천】춘천시가 2024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확정 지으면 서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7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다.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가 통합돼 지방시대 엑스포로 새롭게 선을 보인 2022년 부산 개최 당시에는 5만3,067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생

### 전국서 5만명 이상 방문 예측 상경기 활력

### 잇단 세계 태권도 대회 맞물려 위상 제고

산유발 326억원, 소득유발 72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전에서 개최된 엑스포에는 4만4,752명이 방문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엑스포 전시장을 찾아 화제성이 더욱 커졌다.

춘천시는 올해 엑스포도 전국 각지에서 5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

며 50억원의 직접 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3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및 70억원 이상 소득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7월 2024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 축제와 춘천코리아오픈세계태권도대회, 9월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이어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면서 지역 관

광, 숙박, 음식점에도 활력이 기대된다. 시는 엑스포 기간 여러 문화 행사 등을 연계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문화도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4일 엑스포 개최 확정 브리핑을 통해 “대도시를 위주로 개최되던 이전 행사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인 도시에서 개최된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08

## 대통령실 “의사 증원 비롯 의료개혁 전공의 입장 존중”

박단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 만나  
근무여건·열악한 처우 등 설명  
대전협 “총선 전 입장 공식 전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15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이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수경 대통령실대변인은 서면브리

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박비대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며 “박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박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며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단비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내부 공지를 통해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지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밝혔고, 이튿날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대전협 비대위의 7가지 요구사항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수급 체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박창현·김정호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10

## 수도권 접근성 강점 ‘춘천 잠재력’ 알린다

춘천시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

시-도 공조 성과 균형발전 촉진  
정부공모 선정 잇따라 분위기 업  
지역교류 증점 도시브랜드 홍보

2024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춘천에서 열리게 되면서 춘천시가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리게 돼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 공조의 성과다.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와 춘천시 기획예산과는 올해 초 개최지 선정을 위해 유치실무추진단을 운영, 현장실사와 최종심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해 춘천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도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최종 개최지 선정 프레젠테이션에 담아 화제가 됐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춘천이 수도권·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웠다. 지방시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도시 위주의 기존 행사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엑스포를 개최, 도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앞세웠다. 엑스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22년 부산의 경우 약 5만 3000여 명이, 대전에서 개최된 지난해 행사는 4만 4000여 명이 엑스포 현장을 찾았다.

도는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이어 지방시대 엑스포까지 개최하게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춘천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교육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에 선정된 데다 올해의 경우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코리아오픈세계태권도대회,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까지 잇따라 열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4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춘천의 교육과 관광, 산업 등 잠재적 역량을 안팎으로 알리고 춘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드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김덕형

江原日報

2024 04 05 ( )

07

# 강원 건설업계 위기설 현실화

현대아산 미수금 703억 20%↑  
미분양 지속·고금리 등 원인

정부가 최근 제기된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지난해 강원지역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하도급 업체까지 자금순환이 막히며 건설시장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도내 3위(2023년)인 현대아산(주)의 2023년 말 기준 공사용역 미수금은 70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83억1,700만원보다 20.6% 증가했다.

현대아산이 지난 1일 공시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공사미수금은 ‘천안오토아레나 신축공사’ 212억1,500만원, ‘논현역 B722 업무복합시

설 신축공사’ 58억4,900만원 등이었다. ‘원주태장2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서도 8억4,100만원의 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미수금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사나 시공을 완료했으나 받지 못한 대금을 의미한다. 발주처 파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수할 수 없어 위험노출자산으로 분류된다.

도내 건설사들의 미수금 증가 사례는 더 있었다.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시공능력평가 도내 8위 에스원건설의 공사미수금은 2022년 59억2,400만원에서 지난해 98억1,0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 11위 상리건설의 2023년 말 기준 미청구 공사금액은 38억1,000만원을 기록, 2022년(12억4,000만원)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꼽힌다. 대한건설협회 도

회 관계자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줘야 하는 시행사들부터 돈이 돌지 않으니 자금흐름이 막혀버린 것”이라며 “공사미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택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한 건설사 17곳의 진행 사업장 700여곳 중 104곳은 분양률이 70%를 밑돌고 있다.

김현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입주 지연으로 실입주율이 저하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준공 분양률이 70%를 웃돌더라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예정 사업장의 금융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시 부동산 경기가 개선된 후에도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 시점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이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15

## 인제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잇따라

**테니스·축구선수 2300명 방문  
이미지 제고·경기 활성화 목표  
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박차**

봄이 움트는 4월 첫 주말을 맞아 인제 지역에 축구·테니스 선수 2300명이 찾는다.

한국초등학교테니스연맹 주최, 인제군이 후원하는 2024 하늘내린인제 전국꿈나무테니스대회가 5일부

터 8일까지 인제읍 테니스장을 비롯한 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 꿈나무 선수 300명이 참가해 병아리부,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나눠 개인전 단식 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새싹부와 10~12세부는 경기 성적에 따라 한국초등테니스연맹 랭킹 포인트 규정의 3급 대회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가운데 병아리부는 우승 4점, 준우승 3점, 4강 2점, 8강 이하 1점의 포인트가 주어진다.

또 대한축구협회 주최·인제군 후원의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가 6일부터 7일까지 인제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한 8개 구장에서 개최된다. 청년부(20~30대), 장년부(40대), 노장부(50대), 실버부(60대), 황금부(70대)에서 66개팀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선 모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제천연잔디구장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경기는 유튜브 채널 채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군은 이번 유튜브 중계를 비롯해 올해 중목별로 특색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스포츠대회의 품격과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원주 군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지역 상경기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04

## 제2 오색케이블카 건설 본격화 전수조사 나선다

**도 현안사업추진단 14개 정책 점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케이블카 신규설치(본지 3월 12일자 1면 등)를 추진한다. 지난달 11일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민이 원하면 케이블카 추가 건설"방침에 발맞

춰 제2 오색케이블카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김지사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꾸린 '강원도 현안사업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에 '케이블카 신규설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현안사업추진단은 이날 김진태 지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열고 14개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와 김명선·정광열 부지사, 시군 부단체장, 김재진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직접 강원도를 방문해 그 많은 현안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했다"며 "우리에게 굉장히 기회다. 이 현안은 몇달 뒤 반환점을 돌게 되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총 14건의 강원도 현안을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추진, 원주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등이다.

주목받는 건 도내 케이블카 추가 건설 여부다. 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이후 도청 관광국이 해안시·군에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강릉시와 속초시, 삼척시 등 5개 시·군이 케이블카 설치 의향을 밝혔다"며 "철원군도 이날 케이블카 설치 의향을 밝혔다"고 했다.

도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신규설치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덕형 duckbro@kado.net

2024 04 05 ( )

江原日報

05

# 황사 늘고 많은 비 내려 맑은 하늘 보기 힘든 '봄'

올봄 황사일수가 늘고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날씨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에는 며칠 동안 비가 지속되는 등 기온과 강수량 패턴 변동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이 4일 발행한 3월 기후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3월 봄의 불청객 황사가 발생한 일수는 3일로, 1.8일에 불과했던 평년보다 길

## 황사 농도 높고 기온·비 평년 이상 변동 심한 날씨 4월도 이어질 전망

어졌다. 특히 대관령에  $517\mu\text{g}/\text{m}^3$ 에 달하는 황사가 불어오고, 속초가  $444\mu\text{g}/\text{m}^3$ 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안전지대'로 불리는 영동에도 높은 농도의 황사가 관측됐다. 북강릉의 경우 3월17일에 이어 29일과 30일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다.

기온 변동도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최고기온은 10.4도로, 지난해 15도에 비해 무려 4.6도나 낮았다. 영서지역 평년기온은 4.6도로 평년(3.8도)보다 높았지만 영동

지방은 기온은 오히려 평년(5.2도)보다 낮아졌다. 북강릉의 경우 3월2일 기온이 영하 7.6도를 기록해 일최저기온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까지 구룡령 38.0cm, 향로봉 35.3cm, 평창 용산 24.5cm, 진부령 22.8cm의 눈이 내리는 등 때아닌 '봄 폭설'이 쏟아졌다.

흐린 날씨가 3월 하순에 집중된 데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서시민들이 체감하는 기온 변화는 더욱 컸다. 3월 하순 강원지역에 내린 비는 35mm로, 3월 전체 누적강수량 48.2mm의 73%가 10여일간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빗꽃 개화가 늦어지며 강릉시는 3월29일에서 4월5일로 빗꽃축제 개막일을 미루기도 했다.

변동이 심한 날씨는 4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4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는 반면, 일시적으로 상층의 찬 공기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때때로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024 04 05 ( )

# 江原日報

22

## 소이산 모노레일 이용객 20만명 눈앞

철원평야·DMZ 감상 강점  
군, 차량 증설·시설 개량 나서

【철원】소이산 모노레일이 개장 2년여 만에 이용객 20만명을 눈앞에 두는 등 철원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22년 7월 문을 연 소이산 모노레일은 해발 300m 높이의 소이산을 모노레일을 통해 오르는 관광시설로 철원평야와 비무장지대(DMZ)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개장 첫해인 2022년 2만4,000여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2만4,000여명이 찾으며 개장 1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올 3월까지 2만3,000여명의 이용객이 찾으며 이번 달 중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기에도 군은 당초 시간당 64명, 하루 최대 512명에 불과했던 탑승 인원을 지난해 768명까지 늘렸다.

또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부 승강장부터 소이산 정상까지 데크 및 쉼터를 조성하는 등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소이산 정상의 또 다른 관광

자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군(軍)의 유휴 병커시설도 전기 및 통신, 토목 등의 공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재 군 철원역사공원 팀장은 “철원역사문화공원 내 소이산 모노레일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노레일 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 江原日報

2024 04 05 ( )

18

## 주말 강릉 곳곳 ‘벚꽃축제’ 활짝

봄내음 가득한 4월 첫 주말 강릉 경포 일원이 다채로운 벚꽃 축제로 풍성하게 꾸며진다.

4일 찾은 강릉 경포 일대는 ‘2024 경포 벚꽃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축제를 하루 앞두고 이어진 꽃샘추위에 벚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주행사장인 경포습지광장에는 특설 무대와 피크닉존 등이 조성되고 있었다. 뱃나무에는 아름다운 야간의 경포를 밝힐 조명이 설치되는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오늘부터 6일간 ‘경포 벚꽃축제’ 볼거리 풍성

시, 내일 ‘오죽헌 뱃놀이 with 벚꽃프린지’ 개최

벚꽃 개화가 늦어지며 지난달 29일에서 이번 달 5일로 축제 개막일을 미뤘던 강릉시는 개화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0일까지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플라마켓과 레크리에이션, 공연 등을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관광객들에게 선물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부터 7일까지는 강릉 오죽헌 및 생태저류지 일원에서 ‘오죽헌 뱃놀이 with 벚꽃프린지’가 열린다.

강릉시와 문화예술플랫폼 봄아, 강릉시자원순환운동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전통민화 전시, 민속놀이, 뱃놀이 포토존 등이 예정돼 있다.

한복을 입고 벚꽃을 즐기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된다. 시는 축제기간 경포습지광장에서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부스에는 100여점의 성인 남녀 및 어린이 한복이 비치되며,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한복을 입고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강릉=정영기·류호준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 07

## 믿었던 구내식당마저...천정부지 물가에 '사먹기 겁난다'

### 각종 물가 대응책에도 고통자 심화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커지며 정부의 자금투자 등 대응에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지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물가안정 억제... "지갑 열기 부담" 소비자물가 상승에 도민들의 한숨이 더욱 짙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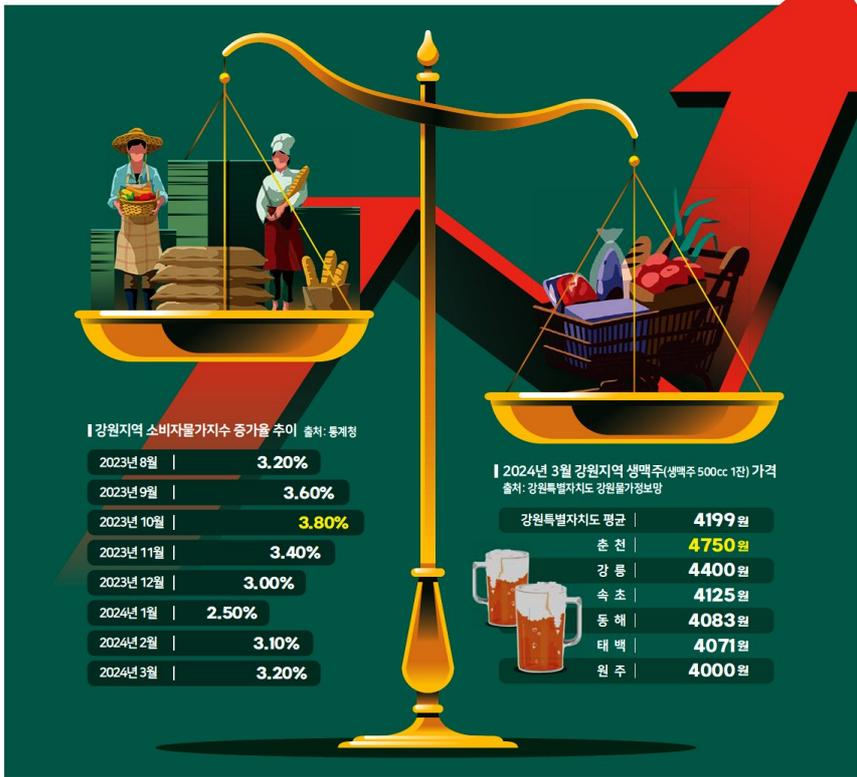
4일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1(2020=100)로 지난해 동월보다 3.2% 올랐다. 지난해 8~12월 5개월간 3%대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5%) 들어 2%대로 다소 둔화됐지만, 다시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신선식품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도내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무려 19.7%나 상승, 이중 신선과실이 39.0% 폭등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지난해 66.7% 상승해 전월(5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또 토마토(35.3%), 파(49.9%), 오이(45.9%) 등도 가격이 치솟으면서 강원 신선채소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7% 뛰었다. 국제유가 불안에 휘발유도 3% 상승하면서 물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각종 물가 오름세에 도내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가중됐다. 특히 강원지역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외식물가 상승률은 4.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2%)보다 높았다.



강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중 전년 동월 대비 3%대 웃돌아 신선과실 폭등 먹거리 큰부담 외식매뉴 생맥주 평균 5.5%↑ 지역별 춘천·강릉·속초 순 비싸 유통업계 "식품 중심 할인 노력"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36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비싸졌다. 그중 구내식당 식사비는 9.3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맥주(8.4%)와 소주(7.7%), 해장국(7.5%), 칼국수(6.8%), 생선회(6.5%), 쌀국수(5.8%), 막걸리(5.1%), 냉면(5.1%) 등이 상승폭이 컸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물가정보망을 활용해 도내 외식매뉴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도평균 생맥주(생맥주 500cc·1잔) 가격은 4199원으로 지난해 동월(3980원)보다 5.50% 올랐다.

지역별로는 춘천(4750원), 강릉(4400원), 속초(4125원), 동해

(4083원), 태백(4071원), 원주(4000원) 등 순으로 비쌌다.

같은 기간 칼국수 가격은 1인분 7145원에서 7493원으로 상승했다. 춘천(8250원)이 가장 비쌌고 이어 강릉(8167원), 속초(7875원), 삼척(7250원), 원주(7000원) 등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 지난해 지역별 등락 품목을 살펴보면 음식을 비롯한 전체 품목 중 춘천은 30여개 품목, 원주는 40여개, 강릉은 30여개 품목이 전월보다 올랐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하며 물가안정에 나섰다. 특히 가격이 급등

한 사과가격안정을 위해 재배적지 복상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등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이 스마트과수원 조성, 거점 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 화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역대급 물가·업계 물가잡기 총력 각종 물가 오름에 유통업계도 물가안정 함인에 나서고 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하나로마트 엔타점은 오는 10일까지 '블랙데이'를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한우차돌박이, 손질명계, 가공식품 등을 할인한다. 오는 주말에는 시금치, 냉이, 불고기, 한우제비추리, 손질 오징어, 문어, 토마토, 딸기 등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오름폭 확대가 전망되면서 물가안정이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체감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할인을 하려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동시다발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잡기에 나선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삼방이 최대 쇼핑 행사인 '랜더스 데이'를 맞아 오는 7일까지 신선 먹거리를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내산 한우구이용 상품은 최대 50%, 수입 삼겹살과 목심은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전북 등 수산물과 즉석조리식품도 할인한다. 또 커피라떼, 세타세제, 장류, 냉동식품 등도 반값 수준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오는 10일까지 통합장려행사 '더큰세일' 2주차 행사를 한다.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삼겹살, 회, 라면 등 먹거리 중심의 행사를 마련했다. 파리고추, 애호박, 금강감자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도 특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를 열고, 잡곡 등 농축수산물을 50% 할인한다.

황선우 woo6745@kado.net



◇‘인제군민 내나무갓기 캠페인’ 행사가 4일 인제장날 장터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인제=최영재기자

## “산림1번지 인제 만들기 밑거름되길”

**본보 군민 내나무갓기 캠페인**  
2천여명 모여 행사장 장사진  
8일 원통리 일원 식목일 행사

【인제】제79회 식목일을 앞두고 국내 산림1번지 인제군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강원일보와 함께하는 ‘인제군민 내나무갓기 캠페인’ 행사가 4일 인제장날 장터에서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직원들과 산불진화대원들

이 왕자두나무, 체리나무, 대추나무 등 5,000여 그루를 나눠줬고, 주민들은 ‘숲속의 인제 만들기’에 동참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묘목을 받았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나무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행사장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이 대거 찾아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주민 최광일(77·인제읍)씨는 “해마다 좋은 취지의 행사를 만들어줘 감사드

리며, 대추나무와 체리나무를 앞 마당에 심고 잘 가꿔 좋은 나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장기만 군산림자원과장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특히 산불 없는 인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북면 원통리 산 70-2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5일에는 인제군 북면과 서화면에서 나무나눠주기가 이어진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사전투표 하고 벚꽃 나들이 떠나요 포근한 봄날씨를 보인 4일 춘천 효자동에 벚꽃이 피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호

# 강원도민일보

## 강원FC 첫 승 신바람... 7일 전북 원정 2연승 잇는다

대구전 공격력 폭발 3-0 압승  
무실점 수비·후방 전개 빛나  
멀티골 이상현 득점 단독 1위



올시즌 첫 승리의 기쁨을 맛본 강원 FC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시즌 2연승에 도전한다. 강원 FC는 오

는 7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4 6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현재 리그에서 강원은 승점 6(1승3무1패)으로 8위, 전북은 승점 3(3무2패)으로 12위다. 강원은 4라운드까지 첫 승을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3일 홈에서 대구 FC를 3-0으로 이겼다. 매경기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은 이날 압도적인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강원이 대구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처



강원FC 이상현이 지난 3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4 5라운드 대구FC의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이상현은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0 완승에 앞장섰다. 사진제공=강원FC

음부터 끝까지 공격이었다. 후방 빌드업으로 상대를 끌어냈고, 빠른 패스로 상대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공략했다. 수비수로 포지션 변화를 한 이기혁의

진전패스도 날카로웠고, 좌우에 배치된 양민혁과 웰링턴의 돌파와 수비가 담도 매서웠다. 야고는 최전방에서 버터주며 연계 능력을 보였다. 박스 안에

서 활발히 움직인 이상현은 마무리 능력까지 선보이며 시즌 4-5호골을 터트렸다. 현재 득점 랭킹 단독 1위다. 반면 역대 최다 우승(9회)에 빛나는

전북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개막 5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구단은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은 올 시즌을 앞두고 티아고, 에르난데스 등 대형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티아고를 활용한 공격 루트도 좀처럼 나오지 못하면서 리그 최저 득점(4골) 공동 2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다. 베테랑 센터백 홍정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고, 왼쪽 수비수 김진수도 지난 3일 제주전(0-2패)에서 퇴장당했다.

윤정환 감독은 직전 대구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제주에 패하긴 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분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북전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다음 울산전에서도 그 분위기를 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팀 상대 전적은 8승 4무 22패로 강원 이優勢다. 그러나 지난 시즌 전적은 2승 1패로 강원 이優勢다. 심예성

## 강원도민일보

2024 04 05 ( )

/ 19

## ‘강원 사과’ 브랜드화 과제

-정부 2배 확대 계획... 관리·홍보 전략 필요

강원도가 사과 생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서부지역의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주산지로 알려진 대구나 영천 등 경북 일대는,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더 이상 최상의 사과를 생산할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는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맛과 고운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자연여건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제반 환경이 적합한 강원 지역이 사과 생산의 적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자치단체는 생산량 증대와 함께 강원 사과를 브랜드화할 전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 안정적인 국내산 과일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과 재배 면적을 2030년 3만 3000ha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사과는 50만t 이상 확보하고,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도 지난해 각각 5만t, 4만t에서 2030년엔 15만t, 6만t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사과 생산량 확대 정

책은 주목할 만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993년 사과 재배 면적이 483ha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679ha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선, 양구, 홍천, 영월, 평창 등 5대 사과 산지 면적을 지난해 931ha에서 2030년 2000ha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강원도에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강원 사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도내 농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과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 과수 재배 농가는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사과 생산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 한우’가 지역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성장한 것처럼, ‘강원 사과’를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산과 홍보·판매 등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현대화된 유통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일뿐 아니라 가공제품 생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 농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사과 주산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4 04 05 ( )

/ 25

## 신종 사기 ‘리딩방’ 피해 급증, 대책 마련 시급하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불법 리딩방 투자 피해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는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을 비롯한 4명은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에 ‘자금 세탁책’으로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사이트 개설과 운영을 필리핀에서 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고수익 보장’을 내건 문자를 대량 발송해 가입자를 모집했다. 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SNS 오픈채팅방 등으로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일명 주식 리딩방)가 활개 치면서 증권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돈을 챙긴 후 잠적하거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만약 고수익, 원금 보장 등을 앞세워 1대1 조언을 해 준다고 하면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1대1로 주식 종목을 짚어 준다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 준다고 해도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뒤 올 2월까지 5개월간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1,96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SNS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유튜버와 강사 등을 사칭한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광고 속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에 개설된 ‘투자 리딩방’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입금을 요청하는 ‘피싱’ 수법이다. 이름과 얼굴이도 용된 해당 유명인이 이를 신고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해외 플랫폼들이 안일하게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피해 규모는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빅테크 업체에 광고심의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갖춰야 할 것이다. 리딩방에 숨어서 은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모두 색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자들이 일확천금의 꾀에 휘둘리지 말고 리딩방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